

# 베이비부머의 가족갈등대처전략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of Family Conflict on Family Violence among the Baby Boomer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blem-drinking and Self-esteem

김지훈, 김경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ihoon Kim(too2002oot@naver.com), Kyoungho Kim(khk@gntech.ac.kr)

### 요약

본 연구는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한 가족갈등을 경험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가족갈등대처전략이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어떻게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AMOS 21.0 버전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 중 Baron & Kenney(1996)에 의해 활용된 Aroian Test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베이비부머의 가족갈등대처전략은 문제음주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가족갈등대처전략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가족갈등대처전략은 가정폭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중재된 문제음주는 가정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섯째, 강화된 자아존중감은 가정폭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근거로 베이비부머의 가족갈등을 극복하고 가정폭력을 축소·예방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이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고려할 점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베이비부머 | 가족갈등대처전략 | 문제음주 | 자아존중감 | 가정폭력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problem-drinking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of family conflict and family violence. The subjects were conflicted by family among baby boomers were selected in the 9th KoWePS. and are analyzed with the statistical program AMOS 21.0 as a cal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also with aroian test for mediating effec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st, positive coping strategies of family conflict was negative related to problem-drinking. 2nd, positive coping strategies of family conflict was positive related to self-esteem. 3rd, positive coping strategies of family conflict was negative related to family violence. 4th, mitigated problem-drinking was insignificantly related to family violence. 5th, reinforced self-esteem were negative related to family violence. Finally, on the base of this results, th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to recover family conflict and to reduce and protect family violence.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presented.

■ keyword : | Baby-boomer | Coping Strategies of Family Conflict | Problem-drinking | Self-esteem | Family Violence |

\* 본 논문은 2014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 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6년 06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7월 22일

수정일자 : 2016년 07월 22일

교신저자 : 김경호, e-mail : khk@gntech.ac.kr

## 1. 서론

2010년 한국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의 배우자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을 다룬 최근의 경험적 연구[1]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이전, 현재, 이후 세대에 대한 배우자폭력 비율이 13.4%, 11.7%, 21.4%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도 더 이상 배우자폭력에 안전한 코호트군이 아니기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산업화 과정은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변화의 주역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은퇴전환기에 내몰려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 의무,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이후 자립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이들 세대의 스트레스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속에서 경제적 취약성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2].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의 삶에 맞춘 병리적·경제적·문화적 접근을 다룬 연구가 주류를 이룰 뿐, 가정폭력을 다룬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3-5], 심리·심리병리학적 특성[6-9], 약물중독·물질남용[10-15], 폭력경험·인식[16-19], 대인관계[20-23], 가족갈등대처전략[24-27]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 관련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폭력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가해자 및 피해자들의 심리·심리병리적 문제를 다룬 연구, 가정폭력 유발요인을 다룬 연구, 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적 대책과 지역사회의 연계체계 구축을 다룬 연구 등 다양한 요인을 다루고 있지만 그 중 가족갈등대처전략을 다룬 국외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왔지만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국외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남성 배우자의 폭력성을 결정짓는 변수로 그 문제해결 능력이 확인되었고[28], 가족갈등을 다루는데 있어 남성

배우자의 폭력 행사 여부에 따라 인지적 평가는 물론 대처전략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26]. 즉, 분노나 공격적 인지와 공격적 행위와의 상관성으로 인해, 개개인의 정서적 반응들은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29],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인지는 적절한 정서적 반응으로 표출되는 반면,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비합리적 인지는 역기능적인 정서적 반응과 행위로 표출된다는 것이다[30-32]. 또한 가족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폭력 가정일수록 문제해결대처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폭력적 가정일수록 정서중심대처전략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회피대처전략이 문제음주를 매개로 심리적·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27], 특히 자신의 긍정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33], 공격성과 적대감을 매개로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규명되었다[34]. 따라서 가족갈등 상황에서 갈등대처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접근은 가정폭력 문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더 나아가 예방 전략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인 베이비붐 세대는 흔히 은퇴전환기에 나타나는 역할상실, 지위상실, 의사결정에서의 소외 등으로 인해 어느 다른 코호트군보다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갈등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어떠한 갈등대처전략을 활용하고 그 결과 가정폭력과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 지에 살펴봄으로써 이들 세대의 가족갈등대처전략이 문제음주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갈등대처전략이 문제음주를 매개로 심리적·신체적 폭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27], 특히 자신의 긍정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지[33]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 갈등대처전략이 부족한 사람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문제음주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35].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족갈등 상황에서 이들 세대의 갈등대처전략과 문제음주, 자아존중감 및 가정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관련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갈등대처전략과 가정폭력

갈등을 대인관계가 형성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도 존재하는 상호의사소통관계에서의 견해차이나[36], 혹은 대인관계에서 파생되는 의사소통의 단절, 의도적 무시와 따돌림, 유·무형의 신체·언어적 폭력 등으로 규정한다면[37], 가족갈등은 가족생활에서 파생되는 가족구성원 간의 욕구나 상호의사소통관계에서의 견해의 차이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 대처는 개인이 특정한 상황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개인의 인지·행동적 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38]. 따라서 (가족)갈등 발생 상황에서 바람직한 (가족)갈등대처과정은 인간의 적응적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36], 집단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역할로 기능하기도 한다[39]. 여기에서 갈등대처전략을 Holtzworth-Munroe[40]는 인간이 어떻게 특정 행동패턴을 획득하고 유지하는가 하는 개입전략의 토대를 제공하는 McFall[41]의 사회인지모델로, Clements & Holtzworth-Munroe[30]은 분노, 공격성 등 폭력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합리적 인지과정을 저해하고 적대적 귀인양식으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폭력을 유발한다는 사회정보과정모델로, Holtzworth-Munroe[42]는 폭력가해자의 분노인식의 수준 및 관리, 그리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에 초점을 맞춘 분노인지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갈등 발생 상황에서 (가족)갈등 그 자체보다도 어떠한 (가족)갈등대처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개인들이 지각하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달라지므로 그 결과가 개인의 가족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은 물론 개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36].

반면, 폭력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 상처를 야기하는 공격행동이 대상자의 심각한 신체

적 상해를 의도할 때 일컫는 말로서 그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독이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이다[43]. 여기에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배우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부폭력은 성을 구분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사용하기에 서구의 배우자 학대보다 더 선호되는 개념으로 부부폭력은 아내구타를, 배우자 폭력은 배우자의 신체적·물리적 폭력을 의미하지만, 배우자 학대는 이러한 신체적·물리적 폭력을 뛰어넘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포괄하는 의미이다[28]. 2013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3년 가정폭력률은 19세 이상 65세 미만 부부폭력의 경우 53.8% vs 45.5%, 자녀학대의 경우 59.3% vs 46.3%, 노인학대의 경우 10.0% vs 10.3%로 나타나 2010년 대비 2013년 가정폭력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가정폭력발생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점은 가정폭력관련 사회문제에 대처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44].

실제로 가족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가족갈등대처전략과 가정폭력 간의 관련성에 있어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인 환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러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를 자신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비폭력 가정일수록 기능적인 문제해결대처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폭력적 가정일수록 역기능적인 정서중심대처전략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5],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처전략은 문제음주를 매개로 심리적·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7]. 여기에서 대처전략이 부족한 사람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문제음주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한다[35]. 게다가 자신의 긍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폭력적 행위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33], 결국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공격성과 적대감을 매개로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4].

## 2. 선행연구 고찰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유발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심리병리학적 특성, 약물중독·물질남용, 폭력경험·인식, 대인관계, 가족갈등대처전략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가족구성원들의 인지·행동요인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가족갈등 상황에서 가족구성원들이 활용하는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히 이루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극소수다. 실제로 국외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남성 배우자의 폭력성을 결정짓는 변수로 그 문제해결 능력이 확인되었고[28], 가족갈등을 다루는데 있어 남성 배우자의 폭력 행사 여부에 따라 인지적 평가는 물론 대처전략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26]. 즉, 분노나 공격적 인지와 공격적 행위와의 상관성으로 인해, 개개인의 정서적 반응들은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29],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인지는 적절한 정서적 반응으로 표출되는 반면,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비합리적 인지는 역기능적인 정서적 반응과 행위로 표출된다는 것이다[30-32]. 또한 가족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폭력 가정일수록 문제해결대처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폭력적 가정일수록 정서중심대처전략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5], 회피대처전략이 문제음주를 매개로 심리적·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27], 특히 자신의 긍정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33], 공격성과 적대감을 매개로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규명되었다[34].

이와 관련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유체영·김정득[24]은 전국 14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기 시작한 남성 폭력배우자를 대상으로 남성 폭력배우자의 부부갈등대처전략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남성 폭력배우자의 부부갈등대처전략은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해결대처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심리적 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회피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신체적 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심리적·신체적 아내폭력의 빈도가 증가하고, 적대감이 높을수록, 음주문제 정도가 심각할수록 심리적 아내폭력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결혼만족도, 적대감, 음주문제 정도가 아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Snow 외[27]는 이전의 선행연구들이 문제음주와 여성 파트너에 대한 남성 파트너의 학대 간의 일관된 관계를 입증하여왔지만, 실질적으로 남성 파트너의 폭력성과 관련된 대처전략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이전의 다변량 연구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학대 행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한계점에 주목하여,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법원 위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47명의 다인종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여성 파트너에 대한 남성 파트너의 학대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음주와 대처전략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대처전략과 문제음주가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를 예측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와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파트너의 상해를 야기하는 신체적 학대 간의 인과관계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회피대처전략이나 문제해결대처전략 모두 문제음주를 매개로 학대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자들 간에는 회피대처전략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제해결대처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남성일수록 문제음주자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회피대처전략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대처전략 또한 신체 및 심리적 학대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자일수록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신체적 폭력 수준이 강할수록 여성 파트너의 상해와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 문제음주와 상해 간의 관계를 증대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파트너에 대한 남성 파트너의 폭력 행위와 관련된 위험 및 보호 요인을 확인하고,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규모와 복지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문 조사하여 구축된 한국복지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는 9차년도(2014년) 복지패널자료에서 추출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1,916명 중 가족갈등을 경험한 베이비부머 88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2.1 가족갈등대처전략

본 연구에서 가족갈등대처전략은 가족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가족갈등대처전략 척도는 지난 1년간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 충돌이 잦다”,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때린다” 등 총 5개 문항,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는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갈등대처전략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91이었다.

##### 2.2 문제음주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란 알코올의존 및 알코올남용과 같은 알코올성 장애는 물론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주변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일체의 음주행위를 의미한다[46]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문제음주 척도는 알코올 중독자의 선별도구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된 문제음주 진단척도인 CAGE척도를 적용하였다. 이 CAGE척도는 지난 1년간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Cut down)”, “술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Annoyed)”,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Guilty)”,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아침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다(Eye-opener)” 등 4개 문항의 약자로서 그 답변이 ‘예(1)’ 혹은 ‘아니오(0)’로 간명하게 구성되어 있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로 의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682이었다.

##### 2.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 사용된 Rosenberg[47]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이해하여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를 갖는 정도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정도로 규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묻는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묻는 4문항, 4점 Likert 척도(1=대체로 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 그렇다, 4=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00이었다.

##### 2.4 가정폭력

본 연구에 사용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배우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척도는 지난 1년간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등 2개 문항, 4점 Likert척도(1=전혀 없음, 2=1-2번, 3=3-5번, 4=6번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83이었다.

###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

성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의 관계구조를 검증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AMOS 2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일련의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방법은 한 종속변수가 다른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독립변수가 될 때 특히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매개변수의 역할을 측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통계기법으로 알려져 있다[48].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평가 시,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인 TLI와 CFI,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들 중에서 위의 지수들을 사용한 이유는 상기 언급한 지수들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개모형 검증은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는 이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49]. 이는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활용해서 추출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로 사용하므로 측정오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또한 분석을 위해 결측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MAR을 가정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다른 전통적인 방법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하는데 주로 활용된다[50]. 그리고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은 Sobel[51] 검증 중 Baron & Kenney[52]에 의해 적용된 Aroian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특히 TLI와 RMSEA는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TLI와 CFI는 0.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고[53], RMSEA의 경우, RMSEA<.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54].

먼저 베이비부머 1,916명 중 883명이 가족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46.1%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수		베이비부머(%)		
		전체가구 (N=1,916)	갈등가구 (A=883)	A/N
성별	남성	905(47.2)	405(45.9)	44.8%
	여성	1,011(52.8)	478(54.1)	47.3%
교육 수준	초등	350(18.3)	159(18.0)	45.4%
	중등	418(21.8)	191(21.6)	45.7%
	고등	812(42.4)	402(45.5)	49.5%
	전문대+	336(17.5)	131(14.8)	39.0%
혼인 상태	결혼	1,540(80.4)	855(96.8)	55.5%
	사별	114(5.9)	6(0.7)	5.3%
	이혼	184(9.6)	2(0.2)	1.1%
	별거	26(1.4)	20(2.3)	76.9%
	미혼	52(2.7)	-	-
가구 구분	일반	1,534(80.1)	713(80.7)	46.5%
	저소득	382(19.9)	170(19.3)	44.5%
가구 원수	1명	122(6.4)	6(0.7)	4.9%
	2명	517(27.0)	216(24.5)	41.8%
	3명	628(32.8)	289(32.7)	46.0%
	4명	476(24.8)	266(30.1)	55.9%
	5명	132(6.9)	80(9.1)	60.6%
	6명	33(1.7)	22(2.5)	66.7%
	7명	8(0.4)	4(0.5)	50.0%

성별로는 조사대상자 883명 중 가족갈등을 경험한 남성은 405명, 여성은 478명으로 나타나 남성(45.9%)이 여성(54.1%)에 비해 낮았으며,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1,916명) 대비 가족갈등을 경험한 비율에서도 남성(47.2%)이 여성(52.8%)보다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가족갈등을 경험한 조사대상자의 경우, 초등학교이하, 중등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졸업자가 159명, 191명, 402명, 131명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45.5%)을 정점으로 그 비율(18.0%/21.6%/45.5%/14.8%)이 점차 높아지다가 하락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가족갈등을 경험한 비율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42.4%)을 정점으로 그 비율(18.3%/21.8%/42.4%/17.5%)이 점차 높아지다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가족갈등을 경험한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결혼, 별거, 사별, 이혼(96.8%/2.3%/0.7%/

0.2%) 순위로 나타난 반면,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가족갈등을 경험한 비율에서는 결혼, 이혼, 사별, 미혼, 별거(80.4%/9.6%/5.9%/2.7%/1.4%) 순위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대비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소득수준별로는 가족갈등을 경험한 일반가구는 713가구, 저소득가구는 170가구로 나타나 그 비율에서도 저소득가구(19.3%)보다 일반가구(80.7%)가 월등히 높았으며,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가족갈등을 경험한 비율에서도 일반가구가 80.1%로 저소득가구 19.9%보다 월등히 높았다. 끝으로 가구원수별로는 가족갈등을 경험한 조사대상가구의 경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가 6가구, 216가구, 289가구, 266가구, 80가구, 22가구, 4가구로 나타나 3인 가구의 비율(32.7%)을 정점으로 그 비율(0.7%/24.5%/32.7%/30.1%/9.1%/2.5%/0.5%)이 점차 높아지다가 하락하였으며, 전체 조사대상가구 대비 가족갈등을 경험한 가구원수별 비율에서도 3인 가구의 비율(32.8%)을 정점으로 그 비율(6.4%/27.0%/32.8%/24.8%/6.9%/1.7%/0.4%)이 점차 높아지다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구조방정식에서 FIML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할 경우, 각 변수들의 정규성 분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55]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에서 약간이라도 일변량 정규성을 위배할 경우 통계적으로 정규성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통계적 검증보다는 절대값의 크기로 평가하는 방법이 더 유용하며, 각 변수들의 절대값이 왜도는 3을, 첨도는 10을 초과하면 이상치로 간주된다[56]. 이 기준에 의해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잠재변수 문제음주의 측정변수 중 'Eye-Opener'와 관련된 문항에서 자료의 비정상성이 관측되어 관련문항을 제거하여 재검증한 후 최종 분석에서는 정규성이 확보된 측정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포

변수	측정변수	평균	SD	왜도	첨도
가족갈등 대처전략	합의하기	4.05	.906	-.791	-.008
	기물투척 않기	4.57	.659	-1.774	3.881
	논의하기	3.54	.851	-.936	.759
	비난하지 않기	4.33	.791	-1.156	1.069
	구타하지 않기	4.80	.459	-2.652	8.671
문제음주	Cut down	.28	.449	.991	-1.021
	Annoyed	.11	.313	2.507	4.303
	Guilty	.14	.352	2.026	2.115
	Eye-opener	.14	.160	5.938	33.405
자존감	긍정적 자존감	2.72	.538	.020	.133
	부정적 자존감	3.52	.433	-1.247	1.781
가정폭력	언어폭력	1.46	.811	1.727	2.059
	신체위협행사	1.06	.343	2.761	9.376

[표 3]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공분산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학적으로 두 잠재변인의 상관이 기준치( $r > 0.85$ )를 상회하면 요인의 변별타당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주요인들의 상관계수가 기준치를 하회하기 때문에 판별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변수들 간 공분산 및 상관관계

잠재변수	공분산	자승·교차 지승합 <sup>1)</sup>	상관계수
대처전략↔문제음주	-.012	-5.359	.054
↔자존감	.085	74.721	.355**
↔가정폭력	-.130	-114.408	-.474**
문제음주↔가정폭력	.015	6.794	.123**
자존감 ↔가정폭력	-.059	-51.740	-.275**

\*\* p<.01, <sup>1)</sup>=Pearson's Chi-square statistic

## 3. 연구모형의 적합성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잠재변수 가족갈등대처전략, 문제음주, 자아존중감 및 가정폭력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chi^2=286.456^{***}$ ,  $df=49$ ,  $NFI=.917$ ,  $TLI=.902$ ,  $CFI=.932$ ,  $RMSEA=.074$ 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NFI	TLI	CFI	RMSEA
	286.456	49	.917	.902	.932	.074

p<.001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전제로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5][그림 1][그림 2]와 같다. 첫째, 잠재변수 가족갈등대처전략과 문제음주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062(C.R./P=-2.722^{**})$ , 표준화경로계수가  $-.158$ 로 나타나 가족갈등대처전략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잠재변수 가족갈등대처전략과 자아존중감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233(C.R./P=8.809^{***})$ , 표준화경로계수가  $.463$ 로 나타나 가족갈등대처전략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잠재변수 가족갈등대처전략과 가정폭력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154(C.R./P=-8.872^{***})$ , 표준화경로계수가  $-.607$ 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족갈등대처전략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잠재변수 문제음주와 가정폭력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044(C.R./P=1.069)$ , 표준화경로계수가  $.068$ 로 나타나 문제음주는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잠재변수 자아존중감과 가정폭력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086(C.R./P=-2.955^{**})$ , 표준화경로계수가  $-.170$ 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연구모형 추정결과표

잠재변수 간의 경로	경로계수		S.E.	C.R./P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갈등대처 전략				
→ 문제음주	-.062	-.158	.023	-2.722**
→ 자존감	.233	.463	.026	8.809***
→ 가정폭력	-.154	-.607	.017	-8.872***
문제음주				
→ 가정폭력	.044	.068	.041	1.069
자존감				
→ 가정폭력	-.086	-.170	.029	-2.955**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경로	경로계수		S.E.	C.R./P
	요인 부하량	표준화 부하량		
가족갈등대처 전략				
→ 합의하기	1.000	.789		
→ 기물투척하기	.636	.691	.031	20.219***
→ 논의하기	.581	.488	.042	13.868***
→ 비난하기	.928	.838	.038	24.314***
→ 구타하기	.361	.563	.022	16.171***
→ guilty	1.000	.797		
문제음주				
→ annoyed	.719	.645	.071	10.080***
→ cut down	1.049	.656	.104	10.122***
자존감				
→ 긍정자존감	1.000	.669		
→ 부정자존감	.928	.771	.095	9.774***
가정폭력				
→ 폭력위협행사	1.000	.530		
→ 언어폭력	3.077	.690	.298	10.322***

\*\*\* p<.00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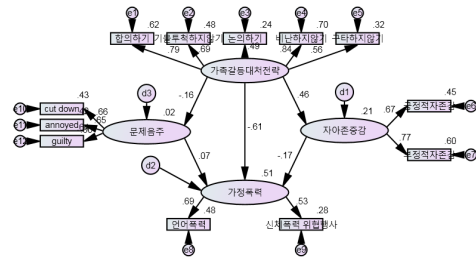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 분석결과(비표준화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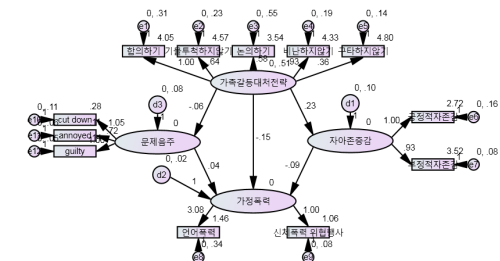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표준화계수)

#### 4. 매개효과 검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가족갈등대처전략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51] 검증 중 Baron & Kenney[52]에 의해 이용된 Aroian Test를 사용하였다. Aroian Test 공식은 예컨대, 가족갈등대처전략과 가정폭력의 관련성에 있어 문제음주의 매개효과(간접효과)는 a(가족갈등대처전략→문제음주) 효과와 b(문제음주→가정폭력) 효과를 곱한 ab로 정의되며, ab에 대한 Z-검정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으며, 이 공식을 이용한 계산결과도 다음의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Z\text{-value} = \frac{a*b}{\sqrt{b^2*s_a^2 + a^2*s_b^2 + s_a^2*s_b^2}}$$

표 6. 문제음주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Z	P-value
갈등대처전략 → 문제음주 → 가정폭력	-.158x.068=-.011	-0.9426	.3459
갈등대처전략 → 자존감 → 가정폭력	.463x-.170=-.079	-2.7997	.0051**

\*\* p<.01



Aroian Test 결과, 가족갈등대처전략과 가정폭력의 관련성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간접효과) Z값은  $-2.7997^{**}$ 로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문제음주의 매개효과(간접효과) Z값은  $-0.9426(p > .05)$ 로 나타나 문제음주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가족갈등대처전략과 가정폭력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잠재변수 가족갈등대처전략, 문제음주, 자아존중감 및 가정폭력이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가족갈등대처전략이 문제음주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가정폭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가족갈등대처전략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예방전략 수립은 물론 가족복지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잠재변수 가족갈등대처전략과 문제음주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062(C.R./P=-2.72^{**})$ , 표준화경로계수가  $-.158$ 로 나타나 가족갈등대처전략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잠재변수 가족갈등대처전략과 자아존중감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233(C.R./P=8.809^{***})$ , 표준화경로계수가  $.463$ 로 나타나 가족갈등대처전략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잠재변수 가족갈등대처전략과 가정폭력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154(C.R./P=-8.872^{***})$ , 표준화경로계수가  $-.607$ 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족갈등대처전략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잠재변수 문제음주와 가정폭력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044(C.R./P=1.069)$ , 표준화경로계수가  $.068$ 로 나타나 문제음주는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잠재변수 자아존중감과 가정폭력 간의 경로에서 비표준화경로계수가  $-.086(C.R./P=-2.955^{**})$ , 표준화경로계수가  $-.170$ 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도출된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문제음주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선진국에서는 가정폭력문제관련 정책이 곧 음주문제의 재활프로그램으로 귀결되고 있다[57]는 점에서 음주요인은 가정폭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하다. 특히 가정폭력가해자의 음주문제와 가정폭력문제를 동시에 개입했을 경우 치료효과가 더 좋다는 실증적 연구[58-60]가 제시됨으로써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음주상태에서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비합리적 인지 기능으로 인해 역기능적인 정서적 반응과 행위가 표출됨에 따라[30-32] 통제력을 상실하고 타인의 행동이나 언어를 왜곡·인지함으로써 결국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상해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여왔다[12-15][27]. 게다가 알코올 중독 치료 이후의 음주 패턴을 결정짓는데 개인의 대처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임이 검증되었다[61].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은 음주 및 약물 복용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동시에 음주 및 약물 치료프로그램에서도 치료대상자의 대처전략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4].

둘째,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가 있다는 정도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고 건전한 성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삶의 통제하고 조절하는 내적인 자원이며, 또한 주변 환경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기도 한다[62]. 실제로 가족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폭력 가정일수록 문제해결대처전략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반면, 폭력적 가정일수록 정서중심대처전략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5], 회피대처전략이 문제음주를 매개로 심리적·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27], 특히 자신의 긍정성을 낮게 평가할수록,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33], 공격성과 적대감을 매개로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규명되었다[34]. 게다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배우자폭력이 증가한다는 실증적 연구들도[63-66]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존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개입이 유효하다는 의미일 것이다[67].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의 자아정체감을 회복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개입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개발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는 그 자체가 가정폭력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일일 것이다.

셋째, 우리사회는 세대 간의 소통 단절 등으로 인해 세대 간의 가족갈등 심화가 예상되면서 가족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68].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는 시기에 진입하면서 자녀의 교육, 결혼에 대한 걱정,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자녀에 대한 경제적·도구적 지원과 아울러 노부모 양쪽에 대한 부양부담이 높아지면서 자녀와 부모 양쪽에 대한 부양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69]. 따라서 가족의 응집력과 탄력성을 강화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갈등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친밀감형성기술[70], 통제력강화기술[71], 자기주장기술[72], 표현능력이나 문제해결기술[73]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가족갈등 발생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심리문제, 대인관계문제, 문제음주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긍정성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의 감소나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74].

넷째, 최근 양성평등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가정폭력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배우자들 간에 언어나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위협이나 불안, 모욕감 등을 조성하는 심리적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공공연하게 방치되거나 묵인되는 측면이 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결혼만족도, 그리고 우울과 관련된[75] 심리적 폭력이 폭력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고, 심리적 폭력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27]. 그러므로 폭력가해자 개입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있어 언어폭력 등 심리적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 심각성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개입에서 정서적·심리적 치료 상담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목적에 의해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별하고 조작하여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 변인들의 범위가 불충분했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 2차 자료 분석이 갖는 불가피한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베이비부머의 가족갈등 대처전략, 문제음주, 자아존중감 및 가정폭력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논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해 드러난 매개효과는 시간에 따른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측정된 각 변인들의 회귀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매개효과는 잠정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가족갈등대처전략, 문제음주, 자아존중감 및 가정폭력 간의 인과관계는 종단적 연구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 참고 문헌

- [1] I. N. Seok, A. L. Donald, and A. V. William, "Correlat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male baby boom and elderly south korean cohor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30, No.5, pp.529-537,

- 2015.
- [2] 서혜경, “베이비붐세대여부와 가정폭력행동과의 관계: 부부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5권, 제4호, pp.1081-1094, 2015.
- [3] C. B. Cunradi, R. Caetano, C. L. Clark, and J. Schafer, “Neighborhood poverty as a predictor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hite, black, and hispanic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A multilevel analysis,” *Annals of Epidemiology*, Vol.10, No.5, pp.297-308, 2000.
- [4] D. N. Pearlman, S. Zierler, A. Gjelsvik, and W. Verhoek-Oftedahl, “Neighborhood environment, racial position, and risk of police-reported domestic violence: A contextual analysis,” *Public Health Report*, Vol.118, pp.44-58, 2003.
- [5] C. B. Cunradi, “Drinking level, neighborhood social disorder, and mutu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31, No.6, pp.1012-1019, 2007.
- [6] 이서원,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7] D. K. Snyder and M. A. Whisman, *Treating difficult couples: Helping clients with coexisting mental and relationship disorders*, *Physical Aggression(201-230)*,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 [8] C. Kaukinen and A. DeMaris, “Age at first sexual assault and current substance use and dep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20, No.10, pp.1244-1270, 2005.
- [9] 심희정, 서미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불안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133-145, 2015.
- [1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과 음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개발*, 2010.
- [11] 윤명숙, 조혜정, “남성가구주의 음주가 배우자 음주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폭력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2호, pp.111-131, 2012.
- [12] C. M. Mckinney, R. Caetano, T. R. Harris, and M. S. Ebama, “Alcohol availability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us coupl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33, No.1, pp.169-176, 2009.
- [13] Y. Xue, M. A. Zimmerman, and R. Cunningham,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use and violent behavior among urban african youths from adolescence to emergi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99, No.11, pp.2041-2048, 2009.
- [14] C. M. Mckinney, R. Caetano, L. A. Rodriguez, and N. Okoro, “Does alcohol involvement increase the severity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34, No.4, pp.655-658, 2010.
- [15] I. M. Wilson, K. Graham, and A. Taft, “Alcohol interventions, alcohol policy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Vol.14, pp.881, [bmcpublichealth.biomedcentral.com](http://bmcpublichealth.biomedcentral.com), 2014.
- [16] 조자영, 이정민, “배우자폭력 피해경험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7권, pp.227-247, 2015.
- [17] H. K. Kim, H. K. Laurent, D. M. Capaldi, and A. Feingold, “Men’s aggression toward women: A 10-year pane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0, No.5, pp.1169-1187, 2008.
- [18] M. P. Johnson, *A typology of domestic violence: Intimate terrorism, violent resistance, and situational couple violence*,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2008.
- [19] K. L. Anderson, “Conflict, power, and violence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2, No.3, pp.726-742, 2010.
- [20] 정윤경,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자의 정서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 복지학, 제62권, 제1호, pp.185-209, 2010.
- [21] 김재엽, 최지현, 송아영, “아내폭력 재폭력의 변화 양상과 부부관계의 관련성 연구: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장기 효과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3호, pp.273-287, 2011.
- [22] G. L. Stuart and A. Holtzworth-Munroe, “Testing a theoretic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mediating variables, and husband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0, No.5, pp.291-303, 2005.
- [23] S. M. Stith, N. M. Green, D. B. Smith, and D. B. Ward,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discord as risk marke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3, pp.149-160, 2008.
- [24] 유채영, 김정득, “남성배우자의 부부갈등 대처전략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pp.277-301, 2009.
- [25] F. E. Gryl, S. M. Stith, and G. W. Bird, “Close dating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Differences by use of violence and by gende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8, No.2, pp.243-264, 1991.
- [26] M. M. Copenhaver, “Testing a social-cognitive model of intimate abusiveness among substance-dependent males,”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Encompassing All Addictive Disorders*, Vol.26, No.4, pp.603-628, 2000.
- [27] D. L. Snow, T. P. Sullivan, S. C. Swan, D. C. Tate, and I. Klein, “The role of coping and problem drinking in men’s abuse of female partners: Test of a path model,” *Violence and Victims*, Vol.21, No.3, pp.267-286, 2006.
- [28] D. S. Riggs, M. B. Caulfield, and A. E. Street, “Risk for Domestic violence: Factors associated with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56, No.10, pp.1289-1316, 2000.
- [28] A. Ellis,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Y: Lyle Stuart, 1962.
- [30] K. Clements, and A. Holtzworth-Munroe, “Aggressive cognitions of violent versus nonviolent spouses,” *Cognitive Therapy Research*, Vol.32, pp.351-369, 2008.
- [31] A. T. Beck, *Cognitive therapy and emotional disorders*,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6.
- [32] A. T. Beck, A. J. Rush, B. F. Shaw, and G. Emery,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Y: Guilford Press, 1979.
- [33] G. MacDonald, M. P. Zanna, and J. G. Holmes, “An experimental test of the role of alcohol in relationship confli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36, No.2, pp.182-193, 2000.
- [34] R. A. McCormick and M. Smith, “Aggression and hostility in substance abusers: The relationship to abuse patterns, coping style, and relapse triggers,” *Addictive Behaviors*, Vol.20, pp.555-562, 1995.
- [35] 우재희, “알코올중독자의 외상경험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180-188, 2014.
- [36] V. L. Berry,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family conflict to children’s health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Bath, Department of Social and Policy Science, 2008.
- [37] 이상영, 정진옥, 송태민, 손명구 외,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38] R. S. Lazarus,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Biobehavioral Medicine*, Vol.55, No.3, pp.234-247, 1993.
- [39] 김경신, 이경미, “노년기 부부갈등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pp.31-54, 2001.

- [40] A. Holtzworth-Munroe, "Social skill deficits in maritally violent men: Interpreting the data using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12, No.6, pp.605-617, 1992.
- [41] R. M. McFall,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skills," *Behavioral Assessment*, Vol.4, No.1, pp.1-33, 1982.
- [42] A. Holtzworth-Munroe, "Male versus female intimate partner violence: Putting controversial findings into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7, No.5, pp.1120-1125, 2005.
- [43] 강신성, 임왕규, "노년기 부부갈등이 황혼이혼과 범죄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178-192, 2013.
- [44]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2014.
- [45] 김지훈, 강욱모,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갈등대처 방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1호, pp.51-69, 2013.
- [46] 김지훈, 강욱모, 문수열, "중년층의 문제음주가 우울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3호, pp.185-203, 2013.
- [47]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48] 조선배,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영지문화사, 1996.
- [49] 배병렬,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2009.
- [50]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 초급, 중급*, 홍세희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4, S&M리서치 그룹, 2008.
- [51] M. E. Sobel,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pp.290-312, 1982.
- [52] R. M. Baron and D. A. Kenne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0, pp.1173-1182, 1986.
- [53]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2007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I, 미간행 시리즈, 2007.
- [54] M. W. Browne and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pp.136-162, 1993.
- [55]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56] R. B. Kline, *Principal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lford Press, 2005.
- [57] D. Gil-Gonzalez, C. Vives-Cases, C. Alvarez-Dardet, and J. Latour-Perez, "Alcohol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Do we have enough information to act?,"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16, No.3, pp.278-284, 2006.
- [58] T. O'Farrell and C. M. Murphy, "Marital violence before and after alcoholism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3, No.2, pp.256-262, 1995.
- [59] C. Easton, S. Swan and R. Sinha, "Motivation to change substance use among offender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19, No.1, pp.1-5, 2000.
- [60] A. S. Jones and E. W. Gondolf, "Time-varying risk factors for reassault among batterer program participa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16, No.4, pp.345-359, 2001.
- [61] M. B. Rask, T. Jorgensen, J. P. Jensen, K. B. Jorgensen, M. Madsen, B. Nielsen, A. N. Anderson, A. S. Nielsen, and M. Gronbaek, "Influence of pretreatment coping strategies on the outcome of outpatient treatment of danish alcohol abusers," *European Addiction Research*, Vol.12, pp.83-90, 2006.
- [62] 김경호, 김지훈, "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0권, 제4호, pp.95-116, 2008.

[63] 김승용, 노인부부 폭력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64] 권태연, 강상경, “가주주의 음주행태와 심리적 특성이 배우자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20권, pp.223-257, 2007.

[65] S. Boney-McCoy and D. B. Sugarman, *Self-esteem and partner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6th International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Hurham, NH, 1999.

[66] G. Bellavial, and S. Murray, “Did I do that? Self-esteem-related difference in reactions to romantic partners’ moods,” *Personal Relationships*, Vol.10, No.1, pp.77-95, 2003.

[67] 이종원,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일치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제4호, pp.103-123, 2010.

[68] 김유경, 이진숙, 이재립, 김가희,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69] 한경혜, 이정화, *지금, 중년을 말할 때*, 파주: 교문사, 2012.

[70] A. Holtzworth-Munroe, and G. L. Stuart, “Typologies of male batterers: Three subtype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Psychological Bulletin*, Vol.116, No.3, pp.476-497, 1994.

[71] A. Rosenbaum, and R. D. Maiuro, *Eclectic approaches in working with men who batter*, Caesar, P. L. (Ed), Hamberger, L. K. (Ed), *Treating men who batter: Theory, practice, and programs*, Springer series: Focus on men, Vol.5, pp.165-195, 1989.

[72] R. D. Maiuro, T. S. Cahn, and P. P. Vitaliano, “Assertiveness deficits and hostility in domestically 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s*,

Vol.1, No.4, pp.279-289, 1986.

[73] G. Margolin, R. S. John, and L. Foo, “Interactive and unique risk factors for husband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of their wives,” *Journal of Violence*, Vol.13, No.4, pp.315-344, 1998.

[74] T. Chung, J. Langenbucher, E. Labouvie, R. J. Pandina, and R. H. Moos, “Changes in alcoholic patients’ coping responses predict 12-month treatment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9, No.1, pp.92-100, 2001.

[75] E. Ro, and E. Lawrence, “Comparing three measures of psychological aggression: Psychometric properties and differentiation from negative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2, pp.575-586, 2007.

저 자 소 개

김 지 훈(Jihoon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석사)
- 2012년 8월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가족복지, 노인복지

김 경 호(Kyoungho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석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